

여수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추진

광양만청, 외자유치 목적... 월내 산자부에 서류 제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이하 광양만청)이 여수 경도 관광단지를 구역 내에 편입하는 신청 서류를 이달 내에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한다.

여수 경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에서는 탈락했지만,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될 경우 여수 경도 관광단지에 대한 독자 개발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7일 광양만청에 따르면 경도 해양관광단지 2.16㎢(66만평)를 경제자유구역에 편

입하는 방안과 관련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의의 마치고 이달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자부가 오는 5월까지 현장 실사를 거쳐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통한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내 여수 경도를 남해안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외국 투자자가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942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여수 경도의 개발에 따라 생산유발 1조6000억원, 취업유발 1만4000여명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27층의 골프장, 콘도, 오토캠핑장과 도로, 상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광양만청은 여수 경도를 편입하는 한편 광양복합업무단지 면적 일부(26만평)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최초 88.98㎢의 면적으로 지정됐다가 그동안 11.29㎢가 해제돼 현재 77.69㎢다. 현재 구역 내 21개 지구 중 59.82%에 해당하는 12개 지구(46.48㎢)는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이며, 읍촌 2산단, 읍촌 3산단 등 9곳은 개발이 미진한 상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미 역대 최대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7일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자 우리 군은 즉각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에 나선다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연합사는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간 동맹 관계와 우호, 대한민국과 여내 안정을 방어하는 양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북측에 이반 훈련 기간과 함께 훈련이 '도발적 성격'의 것이 아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각각 7000여명, 1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은 2500여명으로, 대부분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한다. 나머지 병력은 미국 본토를 포함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증원군이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한국군 병력은 약 30만여명이다.

한미 해병대도 이날 정례적인 연합훈련인 쌍용훈련에 돌입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해병대, 미군 제3 해병원정여단, 제7 감속상륙전단, 76기동부대 등이 참가한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이반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을 개시한 7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작전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등산 정상 토지 소유 관계 파헤쳐 ‘이전 비용 국방부 부담’ 이끌었다”



방공포대 이전 물꼬 튼 권은희 의원 특별 인터뷰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이달 중 발주될 계획이다. 1966년 정상에 방공포대가 들어선지 50년만이다.

광주일보에는 그동안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의 군부대 이전 요구에 따라 기획기사를 통해 수차례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고,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은 초선인데다 보궐선거로 당선돼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50년간 여덟 거물급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낸 '독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광주일보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3년...무등산 옛 모습 찾자'라는 시리즈를 연재한 뒤 권 의원을 만나 국방부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다.

권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관심을 갖게 된 데 대해 '오래 지역 현안들이 정제되고, 반복되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사실 광주에 풀어야 할 오래된 숙제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만 반복되는 정세상황이 안타까웠다"면서 "그래서 오래된 숙제들, 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을 하나 둘씩 해결해 광주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희망을 갖고 광주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란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을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권

의원은 사법고시를 통해 경찰에 입문했고,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을 폭로,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됐다.

이 때문에 국회에 입성한 뒤 행정자치위원회 등의 상임위로 배정될 줄 알았지만, 뜬금없는 국방위원회를 배정받으면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추진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으로 참여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첫 단추를 꿴다.

권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뒤 곧바로 무등산 정상 토지 소유권 관련사항

계약기간 5년내 이전 위해

국방부 예산편성 지속 관심을

들을 따져왔다.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법적 소유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광주시와 국방부 간 사용계약도 면밀히 검토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국방부가 무등산에 군부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50여년간 무등산 정상을 사용하다 보니 이전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소유권 관계 등 법적인 관계 등을 확인시키고, 국립공원 보호의 필요성, 자원보호, 시민 열망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설득해 결국은 국방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이 법적인 소유관계를 따져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과정에서 통상적인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닌 국방부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마련하도록 유도한 것도 중요한 성과중 하나로 꼽힌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광주시와 군부대 이전에 관한 협약을 했지만,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직접 예산을 챙기다보니 군부대 이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의 해결과제도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무등산 정상 부지 사용 계약기간이 5년 남았기 때문에 5년 내에 이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급선무"면서 "국방부 예산 편성 과정에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계획 예산을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고,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역 정치권은 지역의 오랜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선거구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광주 전체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노조 성과급 무력화 시도...행자부 조사단 파견 강경 대응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추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급) 무력화 시도에 행정자치부가 강경 대응 모드로 돌입했다. 행자부는 시에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작년 10월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졌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공노 가입 투

표가 불법이므로 투표소 설치하는 물론이고 단순 투표 참여자도 고발·징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오는 9~11일 전체 조합원 1320명 대상 현장 투표로 전공노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투표소 설치를 놓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연금제도 등을 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데 맞서 내부 힘을 결집하기 위해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최근 노조가 조직적으로 '성과급 나눠먹기'를 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징계·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미 조사에 나선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함께 논란이 된 노조 지침 문건 배포 등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여부를 묻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 정당한 활동"이라고 투표 허용을 촉구했다. /윤영기자 penfoot@

당신의 광장/집안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떡갈비, 떡갈비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목조주택 2016년 1학기 개강

- 3월 8일(화) 저녁7시~9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 3월 9일(수) 저녁7시~9시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시 남의 캠퍼스)
- 3월 10일(목)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예약 필수, 강의실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전담강사 010-5766-5754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H. 010-5766-5754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라·문·영·사·전 지역 안·내·문·물 우송하여 드립니다.